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동향 및 전망

이소양 연구원

요약

DC형 퇴직연금 제도와 가입자 수는 1982년 401(k) 도입 이후 증가세이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82년 2,640억 달러에서 2022년 9조 3,180억 달러로 약 35배 증가함. DC형 퇴직연금은 디폴트 옵션(QDIA)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DB형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음. 향후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시큐어액트 2.0 법안(Secure Act 2.0) 시행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에서는 DB형과 DC형을 포함한 퇴직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1982년 401(k) 도입 이후 DC형 퇴직연금 제도와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DB형 퇴직연금 제도와 가입자 수는 감소함¹⁾
 - 401(k)는 미국 내국세입법(IRC)에 따라 민간사업장에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제도임
 - 미국에서 운영되는 DC형 퇴직연금제도는 401(k) 외에도 공공육기관, 비영리법인, 병원 단체연합회 등 사업장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403(b), 주정부와 지역정부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457(b), 연방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TSP(Thrift Saving Plan) 등이 있음
 - 미국 노동부(DOL)에 의하면 DC형 퇴직연금 제도 수는 1982년 41.9만 개에서 2020년 70만 개로 늘어났으며, 가입자 수는 401(k) 시행 2년 만인 1984년에 3,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0년에는 1억 1,000만 명을 초과함
 - 특히 401(k) 퇴직연금의 제도와 납입자(기여금을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2020년 기준으로 각각 62만 개, 7,221만 명을 기록했으며 DC형 퇴직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8.6%, 84.7%임
 - 반면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이 통과된 첫해인 1975년에는 10.3만 개를 기록했던 DB형 퇴직연금 제도 수가 1983년에 17.5만 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00년 이후 5만 개 미만으로 감소함
 - DB형 가입자 수는 2008년에 4,23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에 3,2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함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82년 2,640억 달러에서 2022년 9조 3,180억 달러로 40년 동안 약 35배 증가함²⁾
 - DC형 퇴직연금에서 2022년 기준으로 401(k)이 6조 5,650억 달러, 403(b)가 1조 1,080억 달러, TSP가 7,250억 달러, 457(b)가 3,850억 달러, 그리고 기타 DC형이 5,3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

1) DOL(2022), "Private Pension Plan Bulletin: Abstract of 2020 Form 5500 Annual Reports"

2) ICI(2023), "Retirement Assets Total \$33.6 Trillion in Fourth Quarter 2022"

- 한편, 2022년 기준으로 IRA³⁾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각각 1982년의 670억 달러와 8,380억 달러에서 11조 4,840억 달러와 10조 6,730억 달러로 증가함
-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연금보험 미포함)는 1982년 1조 1,690억 달러에서 2022년 31조 4,750억 달러로 약 27배 증가함

○ DC형 퇴직연금의 대부분(97%, 2021년)은 디폴트옵션(QDIA) 제도에 따라 TDF(Target Date Fund) 등 고수익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DB형 퇴직연금보다 더 높은 운용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음⁴⁾

- 2006년 미국 정부는 연금보호법(PPA)을 개정해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QDIA에 의한 투자손실에 관한 면책조항을 부여했으며, 이로 인해 종업원에게 QDIA를 제공하는 DC형 퇴직연금이 급증하기 시작함
- 미국의 QDIA는 TDF(Target Date Fund), BF(Balanced Fund), SVF(Stable Value Fund), MA(Managed Account)의 4가지 투자상품을 디폴트 투자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음
- DC형 퇴직연금의 TDF 투자 비율은 QDIA가 활성화되지 못한 2006년 이전에는 35%에 불과했지만 2006년 연금보호법 개정 이후 빠르게 상승해 2021년에는 92%로 상승함⁵⁾
- 2021년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의 BF, SVF, MA 투자 비율은 모두 2%를 못 넘고 있음
-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은 20년간(2001~2020년) 연평균 수익률이 8.6%,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수익률이 10.1%, 3년간(2018~2020년) 수익률이 9.3%로 DB형 퇴직연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DB형 퇴직연금의 최근 20년간, 5년간, 3년간 수익률은 각각 8.3%, 9.2%, 8.6%임

○ 향후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미국 정부의 퇴직연금 혁신 법안인 시큐어액트 2.0 법안(Secure Act 2.0) 서명에 따른 DC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등으로 인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⁶⁾

- 2022년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퇴직연금 혁신 법안인 시큐어액트 2.0 법안(Secure Act 2.0)에 서명했으며, 이에 Secure Act 2.0의 대부분 조항은 2024년 이후 발효될 것임
- 미국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Secure Act 2.0에 신설된 DC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사업주의 기여금 자동 증액, 시간제 종업원의 가입 조건 완화 등⁷⁾은 DC형 퇴직연금의 가입자 수 및 기여금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임
- DC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은 2023년부터 401(k) 등 DC형 퇴직연금을 신규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이 2025년부터 자동으로 가입자가 되는 제도임
- 사업주의 기여금 자동 증액은 401(k) 등 DC형 퇴직연금의 최초 기여금이 종업원 임금의 3~10%로 설정될 수 있고 그 이후 매년 1%씩 상향 조정될 수 있으나 최대 15%까지 조정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시간제 종업원의 경우 기존의 401(k) 등 DC형 퇴직연금 가입 조건은 3년 연속 최소 500시간의 근무였으나 앞으로는 2년 연속 최소 500시간의 근무를 하면 401(k) 등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3) 미국의 IRA는 한국의 IRP와 비슷하며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미국에서 매우 일반적이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DOL(2022), "Private Pension Plan Bulletin: Abstract of 2020 Form 5500 Annual Reports"

5) Callan Institute(2022), "2022 Defined Contribution Trends Survey"

6) Seeking Alpha(2022), "401(k) Automatic Enrollment"

7) 김혜란(2023), 「미국, 연금법 개정(SECURE 2.0 Act)」에서 기타 신설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